

한국 대표 콘텐츠 열도서 빛나다

양국 수교 40주년인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해 한국의 우수 콘텐츠가 '제8회 일본문화청미디어예술제'에 대거 선보였다.

이번 일본문화청미디어예술제 기간 중에 마련된 '한국우수문화콘텐츠전람회'에 9편의 국산 콘텐츠가 전시된 것.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국내 콘텐츠가 선보인 적은 있었지만 일본측의 공식초청을 받아 특별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_신승철 기자

제 8회 일본문화청미디어예술제에서 문화관광부와 일본문화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주일 한국대사관한국문화원이 공동주관하는 '한국우수문화콘텐츠전람회'가 지난날 24일 도쿄에서 개최돼 3월 6일까지 열린다. 일본문화청미디어예술제는 일본 문화청과 CG-ARTS협회가 작가 발굴과 미디어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일본의 콘텐츠 전시회. 이 행사는 현지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어 다양한 우리 콘텐츠를 일본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 지난날 24일 '한국우수문화콘텐츠전람회' 개막식 행사 장면, 왼쪽으로부터 오디디패밀리 김수훈 감독, 원더풀데이즈 김문생 감독,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병문 원장, 일본문화청장 카와이하야오, 주한한국문화원원장 유진환, CG아트협회 이사장 니카타케이지, 일본문화청 부장 데라와키 켄.

2 박세중 감독의 '버스데이 보이'가 제8회 일본문화청미디어예술제 애니메이션 부문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겨울연가 라그나로크 뿌까 등 9개 국산 콘텐츠 전시

일본문화청미디어예술제와 연계해 도쿄 에비스가든룸에서 열린 '한국우수문화콘텐츠전람회'에는 일본에서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를 비롯해 '뿌까', '라그나로크', '원더풀데이즈' 등 9개 작품이 전시됐다.

한국우수문화콘텐츠전람회 개막식은 지난날 24일 도쿄 에비스가든룸에서 개최됐으며, 일본경제산업성, 일본문화청, 디지털콘텐츠협회 등 한일 문화산업관계자 20여명과 현지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일본문화청미디어예술제에서는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 본선 후보에 올라 두각을 나타낸 박세중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버스데이 보이(Birthday Boy)'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43개국에서 1,498 작품이 접수돼 각분야별로 총 24개 작품이 수상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일 학생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한일 크리에이터 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져 콘텐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분위기도 고조됐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이상길 산업진흥본부장은 "이번 전시는 일본에서 '보야'와 '윤사마'로 대표되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다양한 분야의 우수 문화콘텐츠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한국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여 그동안 정적으로 일본 대중에게 알려진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